석독 구결 자료의 명령문 고찰

장 윤 희*

1.

최근 15세기 이전의 국어를 반영하는 석독, 음독 구결 자료들이 속속 발굴되면서 전기 중세국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 동안 국어사, 특히 국어 문법사 연구에 있어서 문헌 자료의 절대적인 양적 제한으로 말미암아 15세기 이전 국어의 정확한 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지금까지의 사정을 돌이켜 볼 때 이는 매우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다. 그 동안 발굴된 구결 자료와 새로이 발굴되는 구결 자료들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국어사의 공백기로 남아 있었던 전기 중세국어의 문법적 사실에 대한 기술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고려 시대의 구결 자료들이 가지는 가치는 국어사의 공백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 자료들은 우선 15세기 국어에서 특이한 현상으로 파악되던 현상의 뿌리를 밝혀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것이라 할 수

* 서울대학교

있다.[1] 또한 15세기 형태소들의 기원적인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암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큰 의의를 지닌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구결 자료 중에서 음독 구결 자료는 시기상 전기 중세국어의 후반기 자료로서 15세기 국어와 직접 연결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석독 구결 자료들은 보다 이른 전기 중세국어의 초기 자료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특히 석독 구결 자료는 고대 국어와 중세국어의 연결 고리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석독 구결의 표기 원리나 사용된 글자(구결자) 등이 향가 표기에 사용된 향찰의 그것과 사뭇 유사한 점이 많아 향가 자료와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 고대 국어의 모습을 재구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이러한 고려 시대 석독 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명령문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명령문을 이루는 명령법 종결어미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 분포와 용법을 살펴, 특히 15세기의 명령문과는 어떠한 차이점과 동질성을 지니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현재 석독 구결 자료를 대상으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명령법 어미 체계를 수립하는 일부터 쉽지 않다. 15세기 국어에서는 명령법 어미가 공손법 등급에 따라 '-쇼셔', '-어쎠', '-으라'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비해 석독 구결 자료에서는 명령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는 '-ᄒᆞᅀᅩ(셔)'만이 보일 뿐이다. 그것도 '-ㅌᆞᅀᅩ(ᄂᆞ셔)', '-ㅁᄒᆞᄀᆞᅀᅩ(고기시셔)' 등과 같은 모습

1) 대표적으로 이현희(1995)에서는 '내 알ᄑᆡ셔 주거 뵈욤짜 (성종판 三綱行實圖, 충신 6)'에서 나타나는, 당시로서는 특이해 보이는 어미 구조체 '-음짜'는 향가의 '-音如', '音叱如, -音叱多', 석독 구결 자료에서의 '-ㅎᆞᄃᆡ'에서 보이는 어미 구조체가 15세기 한글 자료에까지 흔적을 남긴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또한 김영욱(1996)에서는 祇林寺本『楞嚴經』을 대상으로 하여 15세기에 보이던 확인법 선어말어미 '-거/어-'의 선행 어간의 타동성 여부에 의한 교체가 14세기에도 존재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구결의 연구 결과가 특히 15세기 이후 한글 문헌 자료에서 나타나는 국어 형태소가 갖는 역사적인 연속성의 문제나 형태소의 기원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으로만 나타날 뿐 '-ᅀᅩ'가 용언 어간에 직접 통합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아, 명령법 어미 형태소를 '-ᅀᅩ(셔)'라고 할 수 있을지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문증되는 명령형 '-ㅌᅩ'와 '-ㅁㅏᄒᆞᅀᅩ' 등이 모든 석독 구결 자료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이다. '-ㅌᅩ'는 『華嚴經』 권14에서만 나타난다. 그리고, '-ㅁㅏᄒᆞᅀᅩ'는 『華嚴經』 권14에서 한 번 보일 뿐 모두 『華嚴經疏』 권35에서만 나타난다.[2] 이렇게 문헌에 따라서 명령법 어미 형태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을 뿐 아니라, 이 자료들을 모두 동질적인 공시적 자료로서 다룰 수 있을는지도 문제로 남는다고 하겠다.[3]

따라서 현재까지 발견된 석독 구결 자료만을 대상으로 명령문을 고찰하는 일은 무리가 따르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재의 자료만으로 명령법 어미 체계를 수립하는 작업이 성급한 일로서 불완전한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충분한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이러한 작업을 미뤄 둘 수만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자료만이라도 정리하여 이 자료에서 시사하는 국어사적인 사실을 찾는 일이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석독 구결 자

2) 필자가 대상으로 한 석독 구결 자료는 이미 공개된 『舊譯仁王經』, 『華嚴經』, 『金光明經』 등과 아직 미공개 상태인 『瑜伽師地論』, 『華嚴經疏』이다. 미공개 자료 가운데 『瑜伽師地論』은 남풍현(1993)의 부록으로 영인된 부분을, 『華嚴經疏』는 정재영 선생님으로부터 얻은 다섯 장의 복사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주장은 미공개 자료의 전부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것임을 밝힌다. 이 자리를 빌어 낱장이나마 『華嚴經疏』를 볼 수 있도록 해 준 정재영 선생님께 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나머지 자료들이 조속히 공개되기를 바란다.

3) 구결이나 이두 등의 차자 표기가 강한 보수성을 가진 문자 체계였음은 지금까지의 논의들에서 익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석독 구결이나 음독 구결 자료들을 그 자료가 간행되었을 당시의 국어를 반영한 자료로 다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안병희(1973), 장윤희(1995)에서 지적한 바 있다]. 구결 자료들이 반영하는 사실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료들이 반영하는 사실을 기준으로 자료들 사이의 동질성을 파악하고, 이들이 반영하는 국어가 과연 어느 단계의 국어인지를 찾는 일은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료에서 나타나는 명령법 어미 '-ᄒᆞ(셔)'를 보더라도, 형태상 15세기의 명령법 어미 '-쇼셔', '-어쎠' 등에서 보이는 '셔'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문법사적인 연속성을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국어 문법사 기술에 기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부족한 대로 현재까지의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사실을 찾아 내고 어떤 의미 있는 일반화를 꾀하는 일이 결코 성급하기만 한 일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보다 깊이 있는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작업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의 자료들에서 찾을 수 있는, 문법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석독 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명령형은 '-ㅌᆞ(ᄂᆞ셔)'와 '-ㅁㅅㅎᆞ(고기시셔)'로 나타날 뿐이다. 15세기 국어를 고려할 때 가장 생산적으로 쓰였을 것으로 기대되는 명령법 어미 '-으라'가 석독 구결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인 사실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석독 구결이 반영하는 국어의 시기에 '-으라'라는 명령법 어미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짓기는 어렵다. 자료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은 현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석독 구결과 유사한 시기 또는 그보다 앞선 시기의 국어를 반영한 다른 자료들에서 나타나는 명령형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1) ㄱ. 無盡辯才叱海等 一念惡中涌出去良 (稱讚如來歌 3-4행)
ㄴ. 拜內乎隱身萬隱 法界毛叱所只至去良 (禮敬諸佛歌 3-4행)
ㄷ. 窟理叱大肹生以支所音物生 此肹喰惡支治良羅 (安民歌 5-6행)
(2) ㄱ. 下簾曰 箔恥具囉

ㄴ. 坐曰 阿則家囉
ㄷ. 凡乎取物皆曰 都囉

(1)은, 석독 구결 자료가 반영한 시기와 유사한 시기 또는 그보다 앞선 시기의 국어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진 향가에서 명령법 어미 '-으라'(-良/羅)'가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4] 이 어미 앞에 선어말어미 '-去(거)-', '-良(아/어)-' 등이 통합한 명령형이 바로 (1ㄱ)과 (1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석독 구결 자료가 반영하는 시기와 유사한 시기의 국어를 반영하는 『鷄林類事』에서도 명령법 어미 '-으라'에 해당하는 형태가 보임을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2ㄱ)의 '-具囉', (2ㄴ)의 '-家囉'는 명령형 어미 '-으라' 앞에 선어말어미 '-거-'가 통합한 것을 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ㄷ)에서는 '주-'의 보충법적 명령형 '도라'에 해당하는 어형이 나타나 있는바, 여기의 '囉'에서 분명히 명령법 어미 '-으라'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석독 구결과 유사하거나 앞선 시기의 국어를 반영한 자료들에서 명령법 어미 '-으라'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석독 구결 자료에서 이 어미에 해당하는 구결자가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 자료상 제약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큼을 말해 주는 것이다.[5]

이와 관련하여 석독 구결 자료에서 보이는 구결토 '-ナ ㇇(겨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4) 김완진(1980:75-6)에서는 (1ㄷ)에 대해서, 앞에 나온 '物生'이 이유의 연결어미 '-ᄆᆞᆯ식'를 표기한 것이라는 점과 '治'의 훈인 '다ᄉᆞ리-' 뒤에서는 '더'가 '러'로 변화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治良羅'는 명령형일 수 없고 '다ᄉᆞ릴러라'로 해독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재영(1995)에서도 이와 유사한 견해가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감탄' 정도의 의미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견해가 옳다면 (1ㄷ)의 '-良羅'는 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ㄱ,ㄴ)의 경우에는 분명히 명령문으로 해독되는 것으로 보인다.

5) 이는 물론 석독 구결 자료가 그 자료 간행 시기의 국어를 반영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주장이다. 석독 구결 자료가 향가나 『鷄林類事』가 반영한 국어보다 훨씬 이른 시기의 국어를 반영한 것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앞의 주 4 참조)

(3) 諦ㄱ 聽ホ 諦ㄱ 聽カ 善カ 之シ 思ソヨ 念ソヨ ソカ 法シ 如這 修行ソカ ソナヽ ソロハニ7 時十 波斯匿王7 言ニシ 善ニろ 7ィ (舊仁3:19-20)

(3)′ ㄱ. 諦聽諦聽カ 善カ 之シ 思ソヨ 念ソヨ ソカ 法シ 如這 修行 ソナヽ 七佛ヒ 偈ㄱ 是 如ㅣソナㅣ (舊仁14:21-23)

ㄴ. 十方ヽ十 有7 所ヒ 諸7 妙物ㄱ 無上尊ラ十 奉獻ソ白マ方 應可ヒソ7シ 掌ヒ 中ヽ十 悉ヽ 雨ㄱマ7ム 備マ尸 不ソ尸 丁 ノ尸 無ㄱ ソナヽ 菩提樹ヒ 前ヽ十 持ㄱヽホ 佛シ 供ソ白ヒカ (華嚴14:15,22-23)

ㄷ. 或 不淨離欲門 以 或 滅盡三昧門シ 以ソ尸カ ソナヽ 諸7 衆生ラ 病 不多 同ㄱ7入シ 隨マ 悉ヽ 法藥シ 以ヽ 而ㅠ 對治ソカ (華嚴14:17,15-16)

ㄹ. 迦陵類伽ラ 美妙ソヒヒ 音ミ 俱枳羅等ㅣソ7ラ 妙音聲ミ 種種ヒ 梵音ミ ノ仝シ 皆ヒ 具足ソナヽ 其 心樂シ 隨マ 爲ヽマ 說法ソナカ (華嚴14:18,06-07)

(3)의 'ソナヽ(ᄒᆞ겨아)'는, 앞의 '… ソカ(ᄒᆞ며) … ソカ(ᄒᆞ며)'에 나타난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포괄동사 'ソ(ᄒᆞ)-'에 어미 구조체 '-ナヽ(겨아)'가 통합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이는 구결토 '-ナヽ'의 원자(原字)를 고려하면 그 구성이 앞의 (1ㄱ,ㄴ)에서 확인한 바 있는 명령형 '-去良'과 일치한다. 또한 문맥상 이 문장은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며 잘하며 그것을 생각하고 염원하고 하며 법을 법답게 수행하며 하여라 (라고) 하시니 그 때에 바사닉왕은 말씀하시기를 '좋으시구나!'" 정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면 '-ナヽ'는 명령형 '-거라'를 표기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3)′의 예들을 고려할 때 석독 구결 자료의 '-ナヽ'를 명령형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실 (3)′의 예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3)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결토 '-ナヽ'는 명령형으로서가 아니라 "… 하여(서)" 또는 "… 하여야" 정도의 의미를 지닌 연결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3)의 예문에 대해서도 명령형이 아닌 연결형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6] 요컨대 석독 구결에 나타나는 '-ナヽ'는 비록 그 원

자(原字)가 향가에서 보이는 명령형 '-去良'과 동일하기는 하지만, 명령형이 아니라 선어말어미 '-거-(-ᄂᆞ-)'와 연결어미 '-아(-ㅈ)'가 통합한 연결형인 것이다.

여기에서 석독 구결 자료에서 문증되는 명령형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동사 어간은 'ᄒᆞ-'로, 형용사 어간은 'ᄒᆞ-'로, 계사 어간은 '이-'로 대표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4) ㄱ. ᄒᆞᄂᆞ셔(ᄒᆞᄂᆞ히셔) ; ᄒᆞ고기시셔
ㄴ. 하ᄂᆞ셔(하ᄂᆞ히셔)
ㄷ. 이ᄂᆞ셔

(4ㄱ)은 동사 어간에 명령의 '-ㅌ효(ᄂᆞ셔)'와 '-ㅁㅏㅎ효(고기시셔)'가 통합할 수 있었음을 보여 준다. (4ㄴ)과 (4ㄷ)은 각각 형용사 어간과 계사 어간에도 '-ㅌ효(ᄂᆞ셔)'가 통합할 수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7] 여기에서 우리는 명령법 종결어미로서 '-효(셔)'를 분석해 낼 수 있다. 물론 '*ᄉᆞ효(ᄒᆞ셔)'와 같이 '-효'가 용언 어간에 직접 통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지만, 'ᄉᆞㅌ효(ᄒᆞᄂᆞ셔)'와 'ᄉᆞㅁㅏㅎ효(ᄒᆞ고기시셔)'를 비교해 볼 때 '-효'의 선행 요소인 '-ㅌ(ᄂᆞ)-', '-ㅎ(시)-' 등이 모두 석독 구결 자료에서 각각 독립된 문법적 기능을 지닌 형태소로 기능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효'를 분석해 낼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與ᄉᆞㅁㅏㅎᄉᆞᆫ (華嚴35:11.20)',

6) 그러나 석독 구결 자료의 '-ㅈ'를 연결형으로 볼 때 (3)의 예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문제로 남는다. 이 문장은 문맥상 연결형보다는 명령형으로 보는 편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이다. 혹시 'ᄉᆞㅈ'와 'ᄉᆞㅁㅏㄷㄱ'의 사이에 'ᄉᆞㅎᄃᆡ(ᄒᆞ겸짜)' 또는 'ᄉᆞᄆᆞ ᄉᆞㅎᄀᆞㅣㅣ(홀 디견이다)' 정도의 구결토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듯하다. 여하튼 이 예문의 '-ㅈ'는 석독 구결 자료에서 보이는 다른 것들과는 다른 특이해 보이는 예임에 틀림없다.

7) 명령의 '-ㅌ효'가 형용사, 계사 어간에 통합할 수 있었지만 이때의 형용사와 계사는 자동사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형용사와 계사 어간에 '-ㅌ효'가 통합한 경우는 석독 구결에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覺寤ᄉᆞᄆᆡ白ᄆᆞᄆᆞᄉᆞᆫᄀᆞ (舊仁3.12)', '說ᄆᆞᄆᆞᄉᆞᆫᄀᆞ (舊仁11.11)' 등의 예와 비교해 볼 때 '-ᄆᆞᄆᆞᄒᆞᄉᆞᆫ'의 '-ᄉᆞᆫ'는 어말어미 '-ᄉᆞᆫ(며)', '-ᄀᆞ(은)' 등과 계열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분석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분석은 명령형 'ᄒᆞᄂᆞ셔'(ᄂᆞᄒᆞᄉᆞᆫ)와 'ᄒᆞᄂᆞ히셔'(ᄂᆞᄒᆞᄉᆞᄒᆞᄉᆞᆫ)를 동일한 형태론적 구성으로 파악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듯하다.

(5) ㄱ. 佛子ᄃᆞᆯ 菩薩ᄀᆞ 在家ᄂᆞᄀᆞᆡ ᄒᆞᆫᄀᆞ 當ᄒᆞ 願ᄆᆞᄆᆞᄒᆞᆫᄀᆞ 衆生ᄀᆞ 家性ᄋᆞᆯ 空ᄂᆞᄀᆞᄂᆞᆫᄃᆞ 知ᄃᆞᆯᄊᆞᄆᆞ 其 逼迫ᄂᆞᆫᄃᆞ 免ᄉᆞᄒᆞᄉᆞᆫ ᄂᆞᄆᆞᄒᆞᄀᆞᆫ (華嚴14:2.18-19)

ㄴ. 父母ᄂᆞᆫ 孝事ᄂᆞᄆᆞᄀᆞᆫ ᄒᆞᆫᄀᆞ 當ᄒᆞ 願ᄒᆞᄂᆞᆫᄀᆞ 衆生ᄀᆞ 善ᄉᆞ [於]佛ᄂᆞᆫ 事ᄒᆞᄆᆞᄃᆞᆯᄊᆞᄆᆞ 一切ᄂᆞᆫ 護ᄂᆞᄒᆞᆫ 養ᄂᆞᄒᆞᆫ ᄂᆞᄒᆞᄉᆞᄒᆞᄉᆞᆫ (華嚴14:2.20)

우선 (5)에서 '-ᄒᆞᄉᆞᆫ'와 '-ᄒᆞᄉᆞᄒᆞᄉᆞᆫ'가 나타나고 있는 환경은 대략 'V-ᄆᆞᄀᆞᆫ ᄒᆞᆫᄀᆞ 當(ᄒᆞ) 願(ᄆᆞᄆᆞᄒᆞᆫᄀᆞ/ᄒᆞᄀᆞᆫ) … V-ᄒᆞᄉᆞᆫ/ᄒᆞᄉᆞᄒᆞᄉᆞᆫ (ᄂᆞᄆᆞᄒᆞᄀᆞᆫ)[어떠어떠 할 때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이러이러 하소서 (할 것이며)]'로서 동일하다. 그런데 (5ㄱ)에서는 '-ᄒᆞᄉᆞᆫ'가 나타나 있고 (5ㄴ)에서는 '-ᄒᆞᄉᆞᄒᆞᄉᆞᆫ'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구결토에서 차이를 보이는 'ᄉᆞ'가 별개의 국어 형태소를 표기한 것이라면 이 둘은 당연히 별개의 형태론적인 구성으로 파악해야 한다. 결국 이 두 구결토가 동일한 국어 형태소를 표기한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구결자 'ᄉᆞ'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ᄉᆞ'에 대하여, 향가의 '攴'과 동일하게 선행 요소가 훈독됨을 지시해 주는 기능을 가진 지정문자로 파악한 이승재(1993ㄴ:357-60)의 논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승재(1993ㄴ)에서 모든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보다 나은 대안을 가지지 못한 현재로서는 이 논의를 수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8] 『華嚴經』에서 (5ㄱ)은 '-ᄒᆞᄉᆞᆫ'가 등장하는 문맥

8) 특히 이승재(1993ㄴ)에서는 만일 'ᄉᆞ'가 형태소를 표기한 것이라면 '離ᄉᆞᄒᆞᄉᆞ

으로는 처음 부분의 예이고 (5ㄴ)은 (5ㄱ)과 동일한 문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바, 이럴 때 처음에 나오는 구결토는 완전히 표기한 후 그 다음부터 이와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오는 구결토는 생략해 표기하는 일반적인 구결 표기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ᄎ'를 지정문자로 보면 '-ㅌ효'와 '-ㅌᄎ효'는 모두 선어말어미 '-ㅌ(ᄂᆞ)-'와 명령법 어미 '-효(셔)'의 통합체를 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9]

3.

석독 구결 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명령문은 어미 구조체 '-ㅌ효'로 표현되는데, 특히 이 '-ㅌ효'는 '願ロ尸のㄱ/願入ㄱ S (ᄂᆞᄆᆞᄒᆞ分)'의 S에서만 나타난다. 현재까지의 자료에서는 이 어미 구조체가 상관적 장면에서 사용된 경우를 찾을 수 없다.[10]

효'와 같이 'ㅌ'를 사이에 두고 'ᄎ'가 두 번이나 나타나는 일은 있을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9) 이렇게 파악할 때의 문제는, 'ᄎ'로써 석독할 것으로 표시된 'ㅌ'와 관련된 것이다. 석독 구결에서 'ㅌ'는 주로 15세기의 선어말어미 '-ᄂᆞ-'에 해당하는 형태소 표기에 사용되었지만 의존명사적인 요소의 표기에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특히 15세기의 '-ᄂᆞ-' 표기에 사용된 'ㅌ'도 분명히 'ㅌ'의 원자인 '飛'의 훈 "ᄂᆞᆯ-"을 빌어 표기한 것으로 석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때의 'ㅌ'에는 결코 지정문자 'ᄎ'를 쓰는 일이 없다. 따라서 'ᄎ'를 지정문자로 보기 위해서는 선어말어미 등의 표기에 쓰인 'ㅌ'와 '-ㅌ효/ㅌᄎ효'에 쓰인 'ㅌ'가 다른 요소임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ㅌ효/ㅌᄎ효'의 'ㅌ'가 어떤 요소인지 현재로서는 확실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승재(1993ㄴ)에서는 '-ㅌ효'의 '-ㅌ-'를 15세기의 '-거/어/나-'에 해당하는 요소로 파악한 바 있으나 몇 가지 점에서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로 보인다(이에 대해서는 후술됨). 오히려 정재영(1996)에서와 같이 '-ㅌ효'의 '-ㅌ-'도 일반적인 선어말어미 '-ㅌ-'와 동질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이에 대해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10) 이러한 분포상의 제약은 자료상 제약에 의해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주 25 참고).

(6) ㄱ. 大小師ㅋ十 詣ᄉᆞᆨㅣ十ㄱ 當 願 衆生 巧ᄲᅵ 師長ᄒᆞ 事ㅅ白ᄒᆞㅅ 善法ᄒᆞ 習行ᄒᆞᄫᆞᆸ (華嚴14:3.8)

ㄴ. 佛子ᄒᆞ 菩薩ㄱ 在家ᄒᆞᆨㅣ十ㄱ 當ㅅ 願口尸のㄱ 衆生ㄱ 家性ㅋ 空ᄂᆞㄱのᄒᆞ 知ᄒᆞᄋᆞ 其 逼迫ᄒᆞ 免ᄒᆞᄫᆞᆸ ᄂᆞᄆᆞᄒᆞᄉᆞ (華嚴14:2.18-19)

ㄷ. 父母ᄒᆞ 孝事ᄂᆞᄉᆞᆨㅣ十ㄱ 當ㅅ 願ㅅᆨㄱ 衆生ㄱ 善ᄒᆞ [於]佛ᄒᆞ 事ㅅ白ᄒᆞᄋᆞ 一切ᄒᆞ 護ᄂᆞᄒᆞ 養ᄂᆞᄒᆞ ᄂᆞᄫᆞᄒᆞᆸ (華嚴14:2.20)

ㄹ. 妻子 集會ᄂᆞᄉᆞᆨㅣ十ㄱ 當 願 衆生 怨親平等ᄂᆞᄒᆞᄋᆞ 永ᄉᆞ 貪著 離ᄒᆞᄫᆞᄒᆞᆸ (華嚴14:2.21)

ㅁ. 若ㄷ 五欲ᄒᆞ 得ᄒᆞᄀㅣ十ㄱ 當 願 衆生 欲箭ᄒᆞ 拔除ᄂᆞᄒᆞᄉᆞ 究竟 安隱ᄂᆞᄫᆞᄒᆞᆸ (華嚴14:2.22)

(6)의 문장들은 전체적으로는 보살이라면 당연히 이러이러하게 원해야 한다는 당위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ᄫᆞᆸ'가 통합되어 있는 문장이 표현하는 내용은, 화자가 청자에 대해 어떤 행동을 직접적으로 요청한 것이라기보다는 화자의 내적인 바람 또는 욕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6ㄱ)은 "(보살은) 크고 작은 스승께 찾아 뵐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중생은 스승을 잘 섬겨서 선법을 익혀 행하거라' (할 것이며)"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며, (6ㄴ)은 "불자야, 보살은 집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중생은 집의 성품이 공한 것을 알아서 그 핍박에서 벗어나거라' 할 것이며"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6ㄷ)은 "(보살은) 부모를 효성스럽게 섬길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중생은 잘 부처를 섬겨서 일체의 것을 보호하며 공양하며 하거라' (할 것이며)", (6ㄹ)은 "(보살은) 처자가 모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중생은 원수이거나 친한 사람이거나 평등히 해서 영원히 탐착에서 벗어나거라' (할 것이며)", (6ㅁ)은 "만일 오욕을 얻었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중생은 욕망의 화살을 빼어 없애서 마침내 안은해지거라' (할 것이며)" 정도의 의미로 각각 해석된다. 이 각각의 문장에서 '-ᄫᆞᆸ'가 통합된 문장 부분에서 표현된 내용인 (6ㄱ)의 '중생은 스승을 잘 섬겨서 선법을 익혀 행하거라', (6ㄴ)의

'중생은 집의 성품이 공한 것을 알아서 그 핍박에서 벗어나거라', (6ㄷ)의 '중생은 잘 부처를 섬겨서 일체의 것을 보호하며 공양하며 하거라', (6ㄹ)의 '중생은 원수이거나 친한 사람이거나 평등히 해서 영원히 탐착을 여의거라', (6ㅁ)의 '중생은 욕망의 화살을 빼어 없애서 구경에 안은하거라' 등은 실제로 '중생'을 상대로 한 행위의 요구, 곧 명령이 아니다. 단지 보살의 내적인 바람 또는 욕망의 내용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15세기 국어에서 (6)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 화자의 내적 바람 또는 욕망 표현은 '願호ᄃᆡ S (ᄒᆞ-)' 구문 또는 '願ᄒᆞᆫᄃᆞᆫ S', 'ᄇᆞ란ᄃᆞᆫ S' 구문으로서, 이때의 S에는 '-쇼셔, -고라' 등의 명령법 어미가 통합된 명령문이 올 수도 있지만 '-아/어지라' 등의 욕망을 표현하는 평서문은 물론 주체의 의지, 의도 등을 표시하는 '-리-'를 지닌 평서문 등도 올 수 있었다(이현희 1988, 1994). 그러므로 여기의 '-ㅌ쇼'를 반드시 명령형으로 볼 수 있는가, 곧 '-쇼'를 명령법 어미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15세기 국어와의 문법사적인 연속성을 고려할 때 여기의 '-ㅌ쇼'는 명령법 어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곧 '-ㅌ쇼'에서 보이는 '쇼'는 15세기의 명령법 어미 '-쇼셔', '-어쎠' 등에서 보이는 '셔', '쎠' 등과 관련된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는 점에서 '-ㅌ쇼'를 명령의 어미 구조체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형태적인 기준을 중시하여 '-쇼'를 명령법 어미로 파악한 셈이다.

이렇게 '-ㅌ쇼'를 명령의 어미 구조체라고 할 때, '-ㅌ쇼'의 공손법상의 등급이 문제가 된다. '-ㅌ쇼'는 『華嚴經』에서만 나타날 뿐 아니라 그 사용 환경도 문수보살(文殊菩薩)이 지수보살(智首菩薩)에게 승묘한 공덕을 얻기 위해서 보살이 마음 쓰는 방법에 대해 게송으로 말해 주는 장면에서만 나타난다. 이렇게 사용 환경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ㅌ쇼'의 공손법상 등급을 언급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뒤에 논의할 '-ㅁㅅㅎ쇼'와 비교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윤곽을 그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ㅌ쇼'가 사용된 문장은 그 사용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모두 보살의 내적인 심리를 표현한 것으로 구체적인 화자가

구체적인 청자를 상대로 발화한 것이 아니다. 굳이 화자와 청자를 설정한다면 가상의 보살과 가상의 중생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보살은 중생에 대해 15세기의 'ᄒᆞ라체'나 'ᄒᆞ야쎠체', 또는 반말의 공손법[11]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환경에서 '-ㅌ쇼'가 사용된 용례가 보이지 않아 정확하게 그 등급을 단언하기 어렵지만 15세기의 'ᄒᆞ쇼셔체'보다는 청자를 덜 대우한 등급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12]

앞서 우리는 (6)의 예문들이 화자의 욕망이나 바람을 표현한 문장이라고 한 바 있는데, 실제로 이들 문장은 15세기에 '願ᄒᆞ-', 또는 'ᄇᆞ라-' 등의 서술어를 지닌 채 나타났던 청원구문과 유사해 보인다. 특히 '願ㅁ尸ㅇㄱ(願콜ᄃᆞᆫ)', '願ㅅㄱ(願ᄒᆞᆫᄃᆞᆫ)' 등에 포함된 구결토를 고려할 때 이들 문장들은 외형상 15세기의 '願ᄒᆞᆫᄃᆞᆫ S' 또는 'ᄇᆞ란ᄃᆞᆫ S' 구문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보이는 문장들은 '願ᄒᆞᆫᄃᆞᆫ S', 'ᄇᆞ란ᄃᆞᆫ

11) 여기에서의 '반말의 공손법'은, 안병희(1965ㄱ, 1965ㄴ)에서 처음 지적한 등급의 공손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므스게 ᄡᅳ시리', '므슴 호려 ᄒᆞ시ᄂᆞ니'에서와 같이 15세기에서는 주로 '-니, -리' 종결형에 의해 그 공손법이 표시된다. '반말'은 고영근(1981, 1987), 허웅(1989), 김영욱(1995) 등에서의 용어이다. 그 등급은 대략 'ᄒᆞ야쎠체'와 같거나 'ᄒᆞ야쎠체'와 'ᄒᆞ라체'의 중간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국어 '반말체'와는 다른 것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12) 정재영(1996:205)에서는 석독 구결의 '-쇼'가 '하소체' 정도의 공손법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 결론은 우리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근거로 제시한 사실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재영(1996:205)에서는, 'ㅌ쇼'의 '-쇼'에 대해 "서원하는 내용, 그리고 문수보살과 지수보살, 또는 문수보살과 현수보살의 대화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 곧 '하소체' 정도의 공손법 등급을 표현하는 명령법 어미로 보면서 그 근거로 '-ㅌ쇼'가 문수보살과 지수보살, 문수보살과 현수보살의 문답으로 이루어진 『華嚴經』 권14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ㅌ쇼'가 청원구문에서 직접화법적으로 제시된 명령문에 사용되고 있어 일반적인 '서원문'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ㅌ쇼'가 결코 문수보살과 지수보살, 문수보살과 현수보살의 대화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다. 가상의 보살이 가상의 중생에 대해 말하는 환경에서만 나타났을 뿐이다. 특히 문수보살과 현수보살의 실제 대화에서는 오히려 '-ㅁㅅㅎ쇼'가 사용되었다(이에 대해서는 후술됨).

S' 구문과는 성격이 다른 문장이다. (6)의 문장들은 청원구문의 서술어 어간 '願(ᄒᆞ-)'에 통합된 15세기의 '願호ᄃᆡ S (ᄒᆞ-)' 구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15세기의 '願ᄒᆞᆫ돈 S', 'ᄇᆞ란돈 S' 구문에서의 '願ᄒᆞᆫ돈', 'ᄇᆞ란돈'은 'S 願ᄒᆞ-', 'S ᄇᆞ라-' 류의 구문에서 '願ᄒᆞ-', 'ᄇᆞ라-' 등이 전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S 뒤에 '願ᄒᆞ-', 'ᄇᆞ라-'의 대동사라고 할 수 있는 'ᄒᆞ-'가 나타나는 일이 없다. 반면 '願호ᄃᆡ S (ᄒᆞ-)' 구문은, 'S 願ᄒᆞ-', 'S ᄇᆞ라-' 류의 구문에서 '願ᄒᆞ-', 'ᄇᆞ라-' 등이 전치되면서 전제의 연결어미 '-오ᄃᆡ'와 통합되고 원래의 자리에 '願ᄒᆞ-', 'ᄇᆞ라-'의 대동사라고 할 수 있는 'ᄒᆞ-'를 남김으로써 나타난 문장으로서 이때의 'ᄒᆞ-'는 수의적으로 생략되기도 한다(이현희 1988, 1994). 그런데 (6)의 문장들은 '願ㅁㅁのㄱ/願ㅅㄱ'에 이어져 나오는 직접화법적인 문장 뒤에 모두 'ㅅㅅㅎㅁ'를 가지고 있다.[13] 이때의 'ㅅ-'는 앞 '願ㅁㅁのㄱ/願ㅅㄱ'에 포함된 동사 '願ᄒᆞ-'의 대동사 이외의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곧 (6ㄴ)은, '(佛子ㅣ 菩薩ㄱ 在家ㅅㄱㅣㅓㄱ) 當ㅅ 衆生ㄱ 家性ㄹ 空ㅅㄱのㅣ 知ㅣ亦 其 逼迫ㅣ 免ᄒᆞᄇᆞᄐᆞ 願ㅅㅅㅎㅁ' 정도의 문장에서 '願ㅅ-'가 앞으로 전치되면서 연결어미적인 '-ㅁㅁのㄱ/-ㅅㄱ'[14]이 통합되고 그 자리에 대동사 'ㅅ-'

13) (6)의 예문 가운데 'ㅅㅅㅎㅁ'가 달려 있는 것은 (6ㄴ)뿐이다. 그러나 (6)의 문장들은 모두 동일한 구조를 지닌 문장들로서 그 중 (6ㄴ)이 가장 먼저 나오는 문장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결 자료에서 이렇게 동일한 구조의 문장이 계속 이어져 나올 경우, 처음 나오는 문장에는 완전한 구결을 달고 뒤의 문장들에서는 반복되는 구결을 생략하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6) 가운데 (6ㄴ) 이외의 문장들에도 뒤에 'ㅅㅅㅎㅁ'가 달려 있던 것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14) 구결토 '-ㅁㅁのㄱ/-ㅅㄱ'은 외형상 15세기 국어의 연결어미 '-은돈'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석독 구결에서는 이 구결토에 포함된 각각의 구결자들이 모두 고유한 의미를 가진 별개의 국어 형태소들을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들로서 각각의 형태소들이 지녔던 의미 기능이 이 구결토에서도 역시 모두 확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석독 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ㅁㅁのㄱ/-ㅅㄱ'을 하나의 연결어미로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오히려 개별 형태소들의 통합체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여기에서 '연결어미적'이라는 표현은 이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

를 남김으로써 생성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15] 따라서 (6)의 문장들은, S 뒤에 '願ᄒᆞ-', 'ᄇᆞ라-'의 대동사 'ᄒᆞ-'가 나타나는 구조를 가졌다는 점에서 15세기의 '願호ᄃᆡ S (ᄒᆞ-)' 구문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16]

이 명령형 '-ᄇᆞᄋᆞᆸ'는 주로 동사 어간에 통합된 예를 보인다.

(7) ㄱ. 若ᄂᆞᆫ 宮ᄋᆡ 室ᄋᆡ ᄀᆞᄉᆞᆷᄋᆞᆫᄃᆞ 在ᄋᆞᄉᆞᆫᄃᆡ ᄒᆞᆫᄃᆡ 當願 衆生 [於] 聖地ᄋᆞᆯᄃᆞ 入ᄋᆞᄋᆞᄒᆞ 永ᄉᆞ 穢欲ᄂᆞᆯ 除ᄇᆞᄋᆞᆸ (華嚴14:2.24)

---

15) '(佛子ᄋᆞ 菩薩ᄀᆡ 在家ᄋᆞᆫᄃᆡ ᄒᆞᆫᄃᆡ) 當ᄒᆞ 衆生ᄀᆡ 家性ᄋᆞᆯ 空ᄋᆞᆫᄃᆡ ᄋᆞᄂᆞᆯ 知ᄋᆞᄒᆞ 其 逼迫ᄂᆞᆯ 免ᄒᆞᆭᄇᆞᄋᆞᆸ 願ᄋᆞᄉᆞᄒᆞᄉᆞᆫ'와 같이 석독되는 문장은 실제로 문증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석독 구결 자료에서 구결을 달아 보인 문장 구조가 완전히 국어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완전히 국어화한 문장에서라면 한문 원문의 '願'이 마지막에 올 수도 있었겠지만, 석독 구결문에서는 한문 원문을 완전히 국어화하지 않고 한문의 원래 순서를 반영하여 읽은 결과 '願ㅁᄃᆞのㄱ/願ㅅㄱ'으로 먼저 석독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주 26 참고).

16)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석독 구결 자료에서 보이는 구결토 '-ㅁᄃᆞのㄱ/-ㅅㄱ'이 외형상으로는 15세기의 연결어미 '-은ᄃᆞᆫ'과 매우 유사하지만, 15세기의 연결어미 '-오ᄃᆡ'가 가졌던 의미 기능도 지녔던 구결토라는 사실을 부수적으로 알 수 있다. 실제로 석독 구결 자료에서 15세기의 '-오ᄃᆡ'와 유사해 보이는 구결토는 'ᄂᆞㄱᄆᆞᆷ, ᄀᆞㄱᄆᆞᆷ'(혼ᄃᆡ), 'ᄂᆞᄃᆞᆷ, ᄀᆞᄃᆞᆷ'(올ᄃᆡ) 등에서 보이는 '-온ᄃᆡ'인데(이승재 1995ㄱ), '온ᄃᆡ'는 15세기의 '-오ᄃᆡ'와는 달리 뒤에 'S (ᄒᆞ-)'와 같은 직접화법적인 문장을 후행시키는 일이 없다. '온ᄃᆡ'는 "전제"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후행절에는 선행절의 "방법"이나 "결과" 등의 내용이 오도록 선·후행절을 연결시키는 기능만을 지닌 순수한 연결어미로서의 용법만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뒤에 'S (ᄒᆞ-)'와 같은 직접화법적인 문장이 후행할 때는 여기에서와 같은 '-ㅁᄃᆞのㄱ/-ㅅㄱ' 등의 통합체가 사용되었다. '十方ᄋᆞᆯᄃᆞ 有ㄱ 所ᄂᆞᆫ 諸ㄱ 妙物ㅣ 無上尊ᄋᆞᆫᄃᆞ 奉獻ᄂᆞᆫ白ᄀᆞᄒᆞ 應可ᄂᆞᆫᄃᆞᄂᆞᆯ 掌ᄂᆞᆫ 中ᄋᆞᆯᄃᆞ 悉ᄋᆞ 雨ㅣᄀᆞㄱᄆᆞᆷ 備ᄀᆞᄆᆞ 不ᄂᆞᄆᆞᄃᆞ ᄂᆞᄆᆞ 無ㅣ ᄂᆞᄂᆞᄒᆞ 菩提樹ᄂᆞ 前ᄋᆞᆯᄃᆞ 持ㅣᄋᆞᄒᆞ 佛ᄉᆞ 供ᄂᆞ白ᄇᆞᄋᆞᆸ (華嚴14:15.22-23)'와 같은 경우에는 마치 직접화법적인 '備ᄀᆞᄆᆞ 不ᄂᆞᄆᆞᄃᆞ'가 후행하고 있는 듯이 보여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雨ㅣᄀᆞㄱᄆᆞᆷ'의 후행절은 '備ᄀᆞᄆᆞ 不ᄂᆞᄆᆞᄃᆞ ᄂᆞᄆᆞ 無ㅣ ᄂᆞᄂᆞᄒᆞ'로서 직접화법적인 문장이 아니다. 이 후행절 역시 앞의 동사 '雨ㅣᄂᆞ-'("비 뿌리다")의 "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ㄴ. 盛署ㅣ ᄆᆞᆷ 炎毒ㅣ ᄀᆞᆺᄀᆡ ᄒᆞ거ᄂᆞᆯ 當 願 衆生 衆ᄀᆡ 惱ᄒᆞ 捨離ᄒᆞ ᄆᆞᆷ 一切ᄒᆞ 皆 盡ᄒᆞᄋᆞᆸ호 (華嚴14:8.1)

ㄷ. 樓閣ᄒᆞ 上昇ᄒᆞᄂᆞᆫᄀᆞᆺᄀᆡ ᄒᆞ거ᄂᆞᆯ 當 願 衆生 正法樓ᄒᆞ 昇ᄒᆞᄂᆞᆫ 一切ᄒᆞ 徹見ᄒᆞᄂᆞᆸ호 (華嚴14:3.2)

ㄹ. 若ᄃᆡ 得ᄒᆞᄂᆞᆫ 佛ᄒᆞ 見白ᄒᆞᄀᆞᆫᄀᆞᆺᄀᆡ ᄒᆞ거ᄂᆞᆯ 當 願 衆生 無礙眼ᄒᆞ 得ᄒᆞᄂᆞᆫ 一切 佛ᄒᆞ 見白ᄒᆞᄋᆞᆸ호 (華嚴14:8.4)

ㅁ. 飯食ᄒᆞ 已ᄒᆞ 訖ᄒᆞᄆᆞᄒᆞᄉᆞᆫ 當 願 衆生 所作ᄒᆞ 皆ᄃᆡ 辦ᄒᆞᄂᆞᆫᄂᆞᆫ 諸ᄀᆡ 佛法ᄒᆞ 具ᄀᆞᆸ호 (華嚴14:7.20)

ㅁ′. 手ᄒᆞᆫ 錫杖 執ᄒᆞᄀᆞᆫᄀᆞᆺᄀᆡ ᄒᆞ거ᄂᆞᆯ 當 願 衆生 大施會ᄒᆞ 設ᄒᆞᄂᆞᆫᄂᆞᆫ 如實 道ᄒᆞ 示ㅣᄉᆞᆸ호 (華嚴14:4.17)

ㅁ″. 若ᄃᆡ 衆會ᄒᆞ 見ᄒᆞᄀᆞᆫᄀᆞᆺᄀᆡ ᄒᆞ거ᄂᆞᆯ 當 願 衆生 甚深法ᄒᆞ 說ᄒᆞᄂᆞᆫᄂᆞᆫ 一切ᄒᆞ 和合ᄉᆞㅣᄉᆞᆸ호 (華嚴14:5.5)

위의 (7)는 '-ᄉᆞᆸ호'가 타동사 어간에 통합되어 있는 경우이다. (7ㄱ-ㄷ)은 전형적인 타동사의 명령형으로서, 'NP-ᄒᆞ V-ᄉᆞᆸ호(NP-을 V-ᄂᆞ셔)'의 구조를 보인다. (7ㄹ)의 '見白ᄉᆞᆸ호'에서는 타동사 어간 '見-'과 명령형 '-ᄉᆞᆸ호' 사이에 겸양법의 선어말어미 '-白(숩)-'이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때 '-白-'은 15세기의 '-숩-'과 마찬가지로 '見-'의 대상(객체)인 '佛'을 높이는 형태소로서 석독 구결 자료에서의 '-白-'이 15세기의 '-숩-'과 거의 일치하는 의미 기능을 지녔음을 확인할 수 있다.[17] (7ㅁ)의 예들은 접미사가 파생되어 형성된 사동사의 명령형을 보이는 예이다. 곧 (7ㅁ)의 '具ᄀᆞᆸ호'의 '가초ᄂᆞ셔' 정도로 읽힐 수 있는 것으로 이때의 'ᄀᆞ'는 사동의 파생 접미사 '-호-'를 표기한 것이로 보인다. (7ㅁ′)에서 '示ㅣᄉᆞᆸ호'의 'ㅣ'는 사동의 파생 접미사 '-이-'이다. (7ㅁ″)의 '和合ᄉᆞㅣᄉᆞᆸ호(化合

17) 최근 백두현(1995)에서는 고려시대의 석독 구결에서 나타나는 '-白-'의 기능이 15세기의 '-숩-'과 일치하는 예와 일치하지 않는 예가 있음을 지적하고, 일치하지 않는 예에 대해서 화자(현토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겸양의 의미를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현희(1985)에서는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에 이르기까지 '-숩-'의 공통적 의미로 "화자의 겸양"을 확인할 수 있음을 주장했던바, 이렇게 보면 결국 석독 구결의 '-白-'과 15세기의 '-숩-'은 화자의 '겸양'이라는 공통적 의미 기능을 지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히이ᄂᆞ셔)'에서도 역시 사동의 접미사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의 'ᄉᆞ'는 앞 용언을 사동화시키는 요소로서 '히' 정도로 읽히는 것이다.[18] 따라서 '和合ᄉᆞ-' 자체가 사동사 어간 '和合히-'를 표기한 것으로서 뒤에 'ㅣ'를 더 표시함으로써 어간이 사동사임을 더욱더 명확히 표시한 것이다.

이때 타동사의 목적어로는 명사뿐만 아니라 용언의 동명사형도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용언을 명사화시키는 동명사형 어미로는 주로 '-ᄆᆞᆯ(을)'이 사용되었다.

(8) 樹ㅣ 葉茂ᄂᆞᆨᄒᆞ 見 當 願 衆生 定ᄒᆞ 解脫ᄒᆞᄂᆞᆺᄒᆞ 以ᄒᆞᄒᆞ 而 ᄆᆞᆷ 蔭映ᄂᆞᄆᆞᆯ 爲ᄒᆞᄒᆞᆮ호 (華嚴14:5.10)

(8)' 嚴飾ᄂᆞᄒᆞᄐᆞ 人ᄒᆞ 見 當 願 衆生 三十二相ᄒᆞ 以ᄒᆞᄋᆞᄉᆞ 嚴好 爲ᄒᆞᄒᆞᆮ호 (華嚴14:5.24)

(8)에서는 타동사 '爲ᄒᆞ(삼)-'의 명령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동사의 목적어는 '蔭映ᄂᆞᄆᆞ(蔭映홀)'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는 동사 어간 '蔭映ᄂᆞ(蔭映ᄒᆞ)-'와 선어말어미 '-오-', 동명사형 어미 '-ᄆᆞ(을)'의 통합체로 파악된다. 곧 '蔭映ᄂᆞᄆᆞ 爲ᄒᆞᄒᆞᆮ호'는 "그늘 비춤을 삼아라" 정도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목적어로 명사 '嚴好'가 제시된 (8)'의 구조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 '-ᄒᆞᆮ호'가 자동사 어간에 통합된 경우도 보인다. 다음이 그 예이다.

(9) ㄱ. 瓔珞ᄒᆞ 著ᄂᆞᄉᆞᆨᄀᆞ 時ᄒᆞᄉᆞᆨᄀᆞ 當 願 衆生 諸ᄀᆞ 僞飾ᄒᆞ 捨ᄂᆞᄆᆞ ᄒᆞ 眞實處ᄒᆞᄉᆞ 到ᄒᆞᆮ호 (華嚴14:03.01)

ㄴ. 苦 行人ᄒᆞ 見 當 願 衆生 [於]苦行ᄒᆞ 依ᄒᆞᄋᆞᄉᆞ 究竟處ᄒᆞᄉᆞ

18) 석독 구결 자료에서의 구결자 'ᄉᆞ'는 '令'를 생획하여 만든 것이다. 석독 구결보다 후대의 음독 구결 자료에서는 오히려 '令'으로 나타나 원래 글자의 모습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이 '令'에 대해서는 남풍현(1990)에서는 '게'라고 읽은 바 있는데, 박진호(1996)에서는 '게'로 읽는 독법은 물론 '시기'로 읽는 독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히'로 읽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至ᄐᆞᅀᅩ (華嚴14:6.14)

ㄷ. 事ᄂᆞᆫ 訖ᄆᆞᄒᆞ 水ᄀᆞᆞᆫ 就ᄀᆞᆫᄃᆡ ᄒᆞᆫᄃᆡ 當 願 衆生 出世ᄒᆞᆫ 法ᄒᆞᆫ 中ᄀᆞᆞᆫ 速疾ᄒᆞᆫ 而ᄆᆞᆫ 往ᄂᆞᆫᄐᆞᅀᅩ (華嚴14:4.13)

ㄹ. 人ᄅᆞᆯ 門戶ᄀᆞᆞᆫ 到ᄀᆞᆫᄃᆡ ᄒᆞᆫᄃᆡ 當 願 衆生 [於]一切 佛法ᄒᆞᆫ [之]門ᄀᆞᆞᆫ 入ᄂᆞᆫᄐᆞᅀᅩ (華嚴14:7.4)

ㅁ. 慙恥ᄂᆞᆫ 無ᄀᆞᄂᆞᆫ 見 當 願 衆生 無慙ᄂᆞᆫ 人ᄂᆞᆫ 捨離ᄂᆞᆫᄆᆞᄒᆞᆫ 大慈ᄒᆞᆫ 道ᄀᆞᆞᆫ 住ᄂᆞᆫᄐᆞᅀᅩ (華嚴14:7.13)

(9ㄱ, ㄴ)은 '이르-' 정도로 읽히는 자동사 어간에 '-ᄐᆞᅀᅩ'가 통합되어 있는 경우이고, (9ㄷ)은 "가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는 자동사 어간 '往ᄂᆞ(往ᄒᆞ)-'에 '-ᄐᆞᅀᅩ'가 통합된 경우이고, (9ㄹ)은 "들어가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는 자동사 어간 '入ᄂᆞ(入ᄒᆞ)-'에, (9ㅁ)은 "머물다" 또는 "살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는 자동사 어간 '住ᄂᆞ(住ᄒᆞ)-'에 '-ᄐᆞᅀᅩ'가 통합된 명령문의 예를 보여 준다.[19]

---

19) 이렇게 '-ᄐᆞᅀᅩ'가 타동사 어간, 자동사 어간에 모두 통합할 수 있다는 사실은 '-ᄐᆞᅀᅩ'의 '-ᄐᆞ-'와 관련한 기존의 논의에 있어서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은 알 수 있게 해 준다. '-ᄐᆞ-'의 기능에 대한 논의 가운데 '-ᄐᆞ-'를 15세기의 '-거/어/나-'의 '-나-'로 파악한 견해가 있었다(이승재 1993ㄴ:373-4). '-ᄐᆞᅀᅩ'를 '-나셔' 정도로 파악한 셈이다. 그러나 '-ᄐᆞ-'로 표기된 '-ᄂᆞ-'가 '-거/어/나-'의 '나'와 모음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접어 두고서라도 형태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15세기의 '-거/어/나-'는 일차적으로는 확인법의 서법을 표시하고 부차적으로는 선행 어간의 타동성 여부를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거-'는 선행 어간이 [-타동성]일 때 '-어-'는 [+타동성]일 때, '-나-'는 선행 어간이 '오-'(來)일 때 통합하는 것이다(고영근 1980). 최근 김영욱(1996)에서는 14세기의 음독 구결 자료 祇林寺本『楞嚴經』에서도 이러한 교체 현상이 있었음을 밝힌 바도 있다. 그런데 '-ᄐᆞᅀᅩ'의 '-ᄐᆞ-'에서 확인법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선행 어간의 타동성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ᄐᆞ-'가 통합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적어도 '-ᄐᆞ-'를 '-거-'의 이형태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한편 '-ᄐᆞ-'의 기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재영(1996)에서는 '-ᄐᆞᅀᅩ'의 '-ᄐᆞ-'를 15세기의 선어말어미 '-ᄂᆞ-'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 계사 어간에도 통합되는 등 15세기의 '-ᄂᆞ-'와는 다른 분포를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석독 구결 자료에서 명령형 '-ㅌ쇼'가 보이는 특징적인 사실은 이 명령형 어미 구조체가 형용사, 계사 어간과도 통합한다는 사실이다. 형용사에는 명령법 어미가 통합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는 사실과,[20] 석독 구결의 '-ㅌ-'가 일반적으로 15세기의 선어말어미 '-ᄂᆞ-'를 표기한 것인데 이 '-ㅌ-'가 형용사, 계사 어간과 통합한다는 점은 석독 구결 자료에서 보이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명령형 '-ㅌ쇼'가 형용사 어간에 통합된 것처럼 보이는 예이다.

(10) ㄱ. 無病人ㄴ 見 當 願 衆生 眞實慧ㅣ十 入ㅅㅣ尓 永ㄷ 病惱 無ㅌ쇼 (華嚴14:6.6)

ㄱ'. 塔ㄴ 遶ノ尸ム 三帀ㄴ ㅅㄷㄱㅣ十ㄱ 當 願 衆生 勤ㄷ 佛道ㄴ 求ノ尸ム 心ㅣ十 懈歇尸 無ㅌ쇼 (華嚴14:8.10)

ㄱ''.若ㄷ 高山ㄴ 見 當 願 衆生 善根 超出ㅅㅣ 能矣 頂ㅣ十 至ㅣ令 無ㅌ쇼 (華嚴14:5.8)

ㄴ. 柔輭食ㄴ 得 當 願 衆生 大悲ᄆ 熏ノㄱ 所ㅣ皿 心意 柔輭ㅅㅌ쇼 (華嚴14:7.16)

ㄷ. 路ㅣ 無塵ㅅㄱㄴ 見ㅣㄱㅣ十ㄱ 當 願 衆生 常ㅣ 大悲ㄴ 行ㅅㅣ尓 其心ㅎ 潤澤ㅌ쇼 (華嚴14:5.3)

ㄹ. 闍梨敎ㄴ 受ㄷㄱㅣ十ㄱ 當 願 衆生 威儀ㄴ 具足ㅅㅣ尓 所行 眞實ㅅㅌ쇼 (華嚴14:3.18)

ㅁ. 手ㅣ十 楊枝ㄴ 執ㄷㄱㅣ十ㄱ 當 願 衆生 皆ㄷ 妙法ㄴ 得ㅣ尓 究竟 淸淨ㅅㅌ쇼 (華嚴14:4.10)

---

20) 현대국어에서 형용사에 명령법 어미가 통합된 '친절하자, 조용하자' 등의 예에 대한 그 동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박영준(1994:193-6)에 정리되어 있다. 한편 박영준(1994)에서는 이렇게 형용사가 명령문에 사용된 현상이 현대국어에서의 예외적인 현상은 아니며 형용사 가운데 '-하다'가 붙은 어휘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게으르다, 늙다, 어즈럽다' 등의 일부 어휘에서 중세국어 이후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휘가 명령문에 사용된 근거로 들고 있는 예문들은 거의 모두 부정 명령문 '-디 말-'의 예문들이어서 적절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명령법 어미가 통합된 것은 형용사 어간이 아니라 부정 명령의 보조동사 '말-'이기 때문이다.

ㅂ. 暑退ᄉᆞᆯ 凉初ㅣ ᄃᆞ외ᄀᆞ ᄒᆞ니ᄀᆞ 當 願 衆生 無上法ᄒᆞ 證ᄉᆞᆯᄊᆞᄅᆞ 究竟 淸凉ᄉᆞᆫᄒᆞᅀᅩ (華嚴14:8.2)

ㅅ. 林藪ᄀᆞᆮ 處ᄉᆞᆫᄃᆞᆫᄒᆞ 見 當 願 衆生 天人ᄋᆞ[之] 歎仰ᄉᆞᆫᄃᆞ 所ㅣᄃᆞ 爲ᄉᆞᆸᄒᆞ ᄉᆞᄒᆞ 應ᄒᆞᄉᆞᆫᄒᆞᅀᅩ (華嚴14:7.2)

(10ㄱ)은 형용사 어간 '無-'에 명령형의 '-ᄒᆞᅀᅩ'가 통합된 예문들이다.[21] (10ㄴ-ㅂ)의 밑줄 친 명령형은 각각 어간 '柔輭ᄉᆞᆫ-', '潤澤ᄉᆞᆫ-', '眞實ᄉᆞᆫ-', '淸淨ᄉᆞᆫ-', '淸凉ᄉᆞᆫ-'에 '-ᄒᆞᅀᅩ'가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들 어간은 기본적으로 모두 형용사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명령문에서 그 사용이 제약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석독 구결 자료에서는 이렇게 형용사 어간에 명령형 '-ᄒᆞᅀᅩ'가 통합된 예가 많이 나타남은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각각의 어간은 형용사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자동사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15세기의 '-ᄂᆞ-'는 일반적으로 동사 어간에만 통합되었으며 드물게는 '모로매 ᄂᆞᆰᄂᆞ니라 (釋詳 11:36)', 'ᄒᆞᆫ 念이 ᄀᆞᆺ 닐면 性空이 어듭ᄂᆞ니 (金三5.16)'에서와 같이 형용사 어간에 통합되기도 했던바, 이들은 동사로 전성된 것이다(고영근 1981:15). 이렇게 형용사에서 동사로 전용되는 현상이 존재하는 이상, (10)의 예문들은 형용사 어간에 명령법 어미가 통합된 것이 아니라 전성된 동사 어간에 명령법 어미가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10ㄱ-ㅂ)의 밑줄 친 부분은 각각 "없어져라", "유연해져라", "윤택해져라", "진실해져라", "청정해져라", "청량해져라" 정도의 자동사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정재영 1996:205).

---

21) (10ㄱ-ㄹ)은 이른바 이중 주어문으로서 첫째 주어는 '衆生'으로 모두 같다. 둘째 주어는, (10ㄱ)에서는 '病惱', (10ㄱ′)은 '懈歇ᄃᆞ', (10ㄱ″)은 '至ᄒᆞᄉᆞ', (10ㄴ)은 '心意', (10ㄷ)은 '其心ᄒᆞ', (10ㄹ)은 '所行'이다. 여기에서 특히 (10ㄱ′)는 '懈歇ᄉᆞᆫ-'의 동명사형 '懈歇ᄃᆞ'이 둘째 주어인 경우이며, (10ㄱ″)의 '至ᄒᆞᄉᆞ'의 'ᄉᆞ'는 관형사형 어미 '-ᄃᆞ'과 형식명사 'ㅣ'(이)의 통합체를 표시한 것으로 결국 '-ᄃᆞ' 관형사형의 수식을 받는 형식명사 '이'가 둘째 주어인 경우이다.

다음과 같이 명령형 '-ㅌ쇼'가 계사 어간과 통합한 예문에 대해서도 앞의 (10)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11) ㄱ. 若 沙門ᄒᆞ 見 當 願 衆生 調柔ᄒᆞᆷ 寂靜ᄒᆞᆷ ᄒᆞᄃᆞᆯ 畢竟 第一ㅣㅌ쇼 (華嚴14:6.12)
ㄴ. 若ㄷ 叢林ᄒᆞ 見ᄒᆞᄀᆞ ㅣ十ᄀᆞ 當 願 衆生 諸ᄀᆞ 天ᄉᆞ 及ㄷ 人ᄉᆞᄂᆞᆺᄅᆞ 敬禮ᄂᆞᄒᆞ[應]ㄷᄒᆞᄂᆞᆫ 所ㅣㅌ쇼 (華嚴14:5.7)
ㄴ'. 敬ᄂᆞᆺㄷ 心ᄆᆞᆷ 塔ᄒᆞ 觀ᄒᆞ白ᄉᆞᄀᆞ ㅣ十ᄀᆞ 當 願 衆生 諸ᄀᆞ 天ᄉᆞ 及ㄷ 人ᄉᆞᄂᆞᆺᄅᆞ 共ㄷ 瞻仰ᄂᆞᄑᆞ 所ㅌ쇼 (華嚴14:8.7)

(11)의 'ㅣ'는 계사 어간 '(-)이-'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계사 어간이 명령법 어미와 통합하는 예는 15세기 국어에서는 찾아 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사실은, 이때의 '(-)ㅣ-'를 일반적인 계사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11ㄱ)의 '第一ㅣㅌ쇼'는 문맥상 "제일이 되거라"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며, (11ㄴ)의 '敬禮ᄂᆞᄒᆞ[應]ㄷᄒᆞᄂᆞᆫ 所ㅣㅌ쇼'는 "공경하여 예를 갖춤직한 바가 되거라"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11ㄴ')의 '所ㅌ쇼'는 (11ㄴ)의 예와 비교해 볼 때 '所'와 '-ㅌ쇼' 사이에 구결자 'ㅣ'가 생략되어 있는 것임에 틀림없는 것으로서 '瞻仰ᄂᆞᄑᆞ 所ㅌ쇼'는 "우러러 볼 수 있는 바가 되거라"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11)의 '(-)ㅣ-'는 순수한 계사라기보다는 '되다'에 해당하는 일종의 자동사적인 요소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22]

이렇게 (10)의 예문들은 동사로 전용된 형용사 어간에 '-ㅌ쇼'가 통합한 것으로, 그리고 (11)의 예문들에 대해서는 자동사적으로 사용된 계사 어간에 '-ㅌ쇼'가 통합된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ㅌ쇼'의 '-ㅌ-'

22) 이에 대해서는 정재영(1996:203-4)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철수가 훌륭한 사람이기를 바란다.'와 같은 현대국어의 소망표현에서도 계사 '(-)이-'가 "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자동사로서의 용법을 보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가 적어도 형용사 어간에 통합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석독 구결 자료에서의 명령법 어미도 15세기 이후 국어의 명령법 어미와 구별되는 매우 특이한 용법을 지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ㅌ효'가 모두 동사적인 어간에 통합했다는 점에서 '-ㅌ효'의 '-ㅌ-'와 15세기의 '-ᄂᆞ-'가 완전히 다른 성질을 지닌 요소는 아니라는 사실도 아울러 확인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때의 '-ㅌ-'가 15세기의 '-ᄂᆞ-'와 외형적인 유사성을 지닌 것처럼 기능상으로도 동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본 논의의 주된 관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므로 여기에서 더 이상의 천착을 삼가기로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짚어 두고자 한다. '-ㅌ효'의 '-ㅌ-'가 지닌 의미 기능을 밝히는 작업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ㅌ-'가 명령문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23] 15세기에는 명령법 어미에 '-ᄂᆞ-'가 결코 통합될 수 없었으나 석독 구결 자료에서는 명령법 어미 '-효' 앞에 '-ㅌ-'가 통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명령문에서는 시제 요소의 사용이 제약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24] 이러한 사실은 이 '-ㅌ-'가 15세기의 '-ᄂᆞ-'가 지녔던 시제적인 의미는 가지지 않은 문법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석독 구결의 '-ㅌ-'는 적어도 15세기의 '-ᄂᆞ-'와 완전히 동일한 의미 기능을 가지는 형태소라고 하기는 어렵다.

---

23) 정재영(1996)에서는 석독 구결의 '-ㅌ-'가 형용사 어간과 통합된 것으로 보이는 문장들이 실제로는 동사로 전성된 어간에 '-ㅌ-'가 통합된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15세기의 '-ᄂᆞ-'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ㅌ-'와 '-ᄂᆞ-'를 기능상 동질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석독 구결의 '-ㅌ-'와 15세기의 '-ᄂᆞ-'가 과연 기능상 동질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의 핵심은 선행 어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명령법 어미 앞에 선어말어미 '-ᄂᆞ-'가 과연 통합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 이상 석독 구결의 '-ㅌ-'와 15세기의 '-ᄂᆞ-'를 기능상 동질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4) 박영준(1994)에서는 명령문 종결어미의 검증 기준의 하나로서 시제 형태소와 공기할 수 없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4.

그런데 석독 구결 자료에서는 '-ㅌ亦' 이외에 '-ㅁㅅ亦(고기시셔)'로 표시되는 명령문이 나타나기도 한다.

(12) ㄱ. 仁ㅣ 亦ㅅㄱ 當ㅅ 於此ㅣ 會ㄷ 中ㅋㄷ ㅅㅋㅅ 修行ㅅㅁㅁㄱㅌㄷ 勝功德ㅣ 演暢ㅅㅁㅅㅁ亦 (華嚴14:08.24)

ㄴ. 大王下 當ㅅ 知ㅁㅅㅁ亦 我ㄱ 今ㅅㄱ 衰老ㅅㅋ 身ㄱ 重疾ㅋ十 嬰ㄷㅅㅎ 煢獨ㅅㅋ 羸頓ㅅㅋ ㅅㅁㄱ 死ㅣ尸入ㄱ 將与ㅎ人 久ㅋ尸 不ㅅ去口乙ㅁㅣ (華疏35:10.17-19)

ㄷ. (時十 或ㄲ 有ナㅣ 人ㅣ 來ㅅㅋㅈ 是ㅣ 言乙 作ㅅナ尸丁) 汝ㄱ 今ㅅㄱ 有斗又ㄱ 所乙 悉ㅋ 當ㅅ 我ㄹ十 與ㅅㅁㅅㅁ亦 ㅅ去ㄱㅣ十 (華疏35:10.07-08)

위의 (12ㄱ)은 '문수보살'이 '현수보살'에게 게송의 형식으로 수행의 승공덕을 물어 대답해 주기를 요청하는 장면에서 나타난 문장이고, (12ㄴ)은 '內施'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내용으로서, 왕으로 있는 보살 앞에 노쇠하고 병든 외로운 사람이 와서 왕에게 왕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보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의 첫 내용이다. 이들은 모두 상관적 장면에서 '-ㅁㅅㅁ亦'가 나타난 예로서,[25] 화자가 청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내용이므로 이 문장이 명령문임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해 준다. (12ㄷ)은 화법구문에서 직접화법으로 제시된 하위문에 '-ㅁㅅㅁ亦'가 나타난 경우이다.[26] 여기에서 직접화법적으로 표현된 문장은 "당신은 지

25) 석독 구결 자료에서 '-ㅌ亦'는 '-ㅁㅅㅁ亦'와는 달리 상관적 장면에서 나타난 예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석독 구결 자료에서 '-ㅌ亦'가 상관적 장면에서 쓰일 수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석독 구결 자료에서의 인용문 등과 같이 상위문 서술어에 내포되는 문장들은 주로 직접화법 형식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ㅌ亦'도 상관적 장면에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자료상의 제약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 10 참고).

금 가진 바를 마땅히 다 나에게 주소서"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명령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ㅁㅅㅎ'의 분석과도 결부된 문제로서 우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석독 구결의 '-ㅁㅅㅎ'가 표시하는 명령문의 공손법상 등급 문제이다. '-ㅁㅅㅎ'의 '-ㅎ-'는 주로 15세기의 존경법 선어말어미 '-시-'에 해당하는 형태소를 표기하던 구결자인바, '-ㅁㅅㅎ'에서도 상대를 높여 대우했다는 점에서 '-ㅎ-(-시-)'의 의미가 발견된다.[27]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12ㄱ)은 '문수보살'이 '현수보살'에게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장면이다. 이 요청에 있어서 '-ㅎ-'가 사용된 점으로 미루어 문수보살은 현수보살을 존귀한 인물로서 대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예문의 다음 장면에서 '현수보살'은 청자인 '문수보살'에게 '善ᄆᆞᆫᄃᆞᆨ[哉]ㅕ 仁者ㅅ 諦ㅣ 聽ᄆᆞᆷᄌᆞᆸ 應ᄒᆞᄋᆞᄂᆞᆫᄃᆡ(華嚴14:9.2)'와 같이 말함으로써 문수보살도 존귀한 인물로 대접하고 있다. 이 예만을 고려하면 '-ㅁㅅㅎ'가 서로 높여 대접하는 관계, 곧 15세기의 'ᄒᆞ야쎠체' 등급 정도의 명령법 어미로 볼 수 있을 듯하다.[28] 그러나 (12ㄴ)의 경우를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12ㄴ)의 화자는 가엽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청자는 대왕이다. 이럴 경우 이 화자는 최고 등급의 공손법 등급을 사용하여

---

26) (12ㄷ)은 석독 구결 자료에서 나타나는 문장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석독 구결 자료에서 보이는 문장이 완전히 국어화한 문장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완전한 국어 문장이었다면 한문 원문과는 다른 어순을 지닌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되었을 법한 것들인데, 석독 구결이 달린 문장은 한문의 원래 어순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으며 한문 원문의 순서와 국어의 순서상 괴리를 보이는 부분에서 종결어미를 통합시켜 결과적으로 여러 개의 문장으로 쪼개져 나타난 것이다. 이때 특히 내적 사유 내용이나 인용 내용 등은 상위문과는 별개의 문장으로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27) 명령문에서는 청자와 주체가 일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공손법 형태소와 존경법 형태소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할 경우에 '-시-'가 사용되었다면 이는 청자를 높이는 결과가 된다.

28) 정재영(1996:205)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중시하여 석독 구결 자료에서 나타나는 '-ㅅㅎ'를 '하소체' 정도에 해당하는 공손법 등급을 표현하는 명령법 어미로 파악하였다.

청자를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ㅁㅏㅎ쇼'는 15세기의 'ᄒᆞ쇼셔체'에 해당하는 공손법 등급에 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 문장의 청자를 문면에 표시한 호격어가 존칭 호격 '-ᄒᆞ(-하)'로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으로, 15세기에도 존칭 호격어 'NP하'에 호응하는 명령법 어미는 '-쇼셔'였다. 이렇게 보면 (12ㄱ)은 15세기에서와는 달리 서로를 높여 대접하는 사이에서도 최상급의 공손법 등급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ㄷ)은 어떤 사람이 한 보살에게 와서 말하는 것으로 이때에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사회적 신분 관계가 명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12ㄱ, ㄴ)의 예를 고려할 때 '-ㅁㅏㅎ쇼'는 15세기의 'ᄒᆞ쇼셔체'에 해당하는 공손법 등급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ㅁㅏㅎ쇼'에서 '-ㅎ-'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면, 앞서 명령법 어미 '-쇼'를 분석하는 자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ㅁㅏㅎ쇼'에서 적어도 '-ㅎ-'와 '-쇼'를 분석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29] 특히 국어 문법 형태소의 일반적인 역사적 변화 과정을 고려할 때[30] '-ㅁㅏㅎ쇼', '-ㅌ쇼'에서 '-쇼'를 하나의 형태소로 분석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석독 구결의 명령법 어미는 '-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문법사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앞서 '-ㅁㅏㅎ쇼', '-ㅌ쇼'의 '쇼'가 15세기의 명령법 어미 '-쇼셔', '-어쎠'의 '셔'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15세기의 '-쇼셔'는 그 속에 '-시-'가 화합되어 있는 형태소로 파악되어 왔는데,[31] 15세기의 '-쇼셔' 가운데 '-시-'

---

29) '-ㅁㅏㅎ쇼'의 'ㅁㅏㅎ', 'ㅁㅏㄴㄱ' 등의 'ㅁㅏㄴ' 등에 대하여 이승재(1991)에서는 향가의 '遣只賜'와 동일한 형태론적 구성으로서 '고+ㄱ#이시/잇/시-'로 읽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곧 이때의 구결자 'ㅎ/ㄴ'는 존재동사를 표기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30) 국어 문법 형태소의 역사적 변화와 관련된 논의는 김영욱(1995)를 참조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국어 형태소는 기원적으로 기능과 형태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일대일 대응의 원리'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곧 15세기의 '-쇼셔'와 같은 경우 이는 기원적으로 '-시-'와 명령법 어미가 화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자체가 기원적인 국어 형태소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와 관련된 요소는 '쇼'일 것임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15세기의 화합형 명령법 어미 '-쇼셔'의 정체를 밝히는 일은 결국 '-시-'를 '쇼'로 변화하게 만드는 요소를 밝히는 일이라는 지금까지의 막연한 추측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5세기의 '-쇼셔'와 '-어쎠'의 공손법상의 등급 차이는, 결국 기원적으로 명령법 어미 '-셔' 이외의 요소인 '-쇼-'(← 시+α)와 '-엇-'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추론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석독 구결 자료에 반영된 국어의 공손법 등급과 관련된 사실도 알 수 있게 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이 당시의 공손법 체계가 15세기의 3분 또는 4분 체계와 같은 복잡한 체계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ㅁ八ㅎ立', '-ㅌ立' 등에서 '-立'를 분석할 수 있다면, 그리고 명령형 어미로 이 '-立'만이 존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령형에서는 청자(=주체)에 대한 존대 의향이 있으면 '-ㅎ-' 등의 경어법과 관련된 형태소를 통합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통합시키지 않는 단순한 체계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ㅁ八ㅎ立'는 (12)와 같은 문맥에서보다는 '願ㅁ尸の丁 S ン-(願콜둔 S ᄒ-)' 구문에서 S의 종결어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앞서 살펴본 '-ㅌ立'가 이러한 구조의 S의 종결어미로 주로 나타났던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곧 이러한 청원구문의 하위 인용문에서 '-ㅌ立'와 '-ㅁ八ㅎ立'가 모두 활발히 사용되었던 것이다.

(13) ㄱ. 我丁 曾八ㅎ刀 得尸 未刂ン七ㅁ乙ㅋ丨 惟八 願ㅁ尸入丁
大王刂ㅎ丁入丁 之乙 捨ン氵ホ 我ラ十 與ンロ八ㅎ分 幷ㅠ
及七 王ラ 身刀 我ラ 臣僕刂尸入乙 [爲]ンロ八ㅎ立 ンム丁
丨十 (華跡35:11.19-20)

ㄴ. 吾又尸 曹丁 今ン丁 [者]各氵ホ 求ノ尸 所乙 有ㅐㅁ七ノ丁

31) 김영욱(1989:26-8)에서는 '-쇼셔'에 '-시-'가 화합되어 있는 증거로 '잇-'의 보충법적 존칭형인 '겨시-'의 명령형이 '*겨시쇼셔'가 아닌 '겨쇼셔'로 나타나 '-시-'가 별도로 실현되지 않는 점과 '-시-'가 분간성을 지니듯이 '-쇼셔'도 분간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제시한 바 있다.

ㄲ 願ㅁ尸入ㄱ 普ㄲ 慈乙 垂ㄲㅎ下ㅅ 得ㄱ亦 滿足 [令]ㄲㅁㅅㅎ立 ㅅㄱ (華疏35:12.12-13)

ㄷ. 唯ㅅ 願ㅁ尸入ㄱ 大王ㄲㅎㄱ入ㄱ 更ㄱ 籌量ㅅㄱㅅ 顧惜ㅅ尸 所乙 有ㅐ尸 莫七ㅎ下ㅅ 但ㅅ 慈念ㅅ尸入乙 見ㄱ亦 以ㄱ [於]我ㅋ十 施ㅅㅁㅅㅎ立 ㅅナ丈ㄱㅣ十 (華疏35:10.20-11.01)

ㄹ. 惟ㅅ 願ㅁ尸入ㄱ 仁慈ㅠ 善方便乙 以ㄱㅅ 己ㅋ 有ㅐㅎㅋㄱ 所乙 捨ㅅㄱ亦 我又乙 具足 [令]ㄲㅁㅅㅎ立 ㅅ丈ㄱㅣ十 (華疏35:15.20-16.01)

(13ㄱ)은 "'나는 전에도 얻지 못했었습니다. 오직 원하기는 대왕이신 것 그것을 버려서 나에게 주시며 아울러 왕의 몸도 나의 신하와 종이 되게 하소서.' 하는 때에"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며, (13ㄴ)은 "'우리들은 지금 각자 구하는 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 원하기는 널리 자비를 드리우셔서 능히 만족시키소서.' 하여" 정도로, (13ㄷ)은 "오직 원하기는 '대왕이시라면 다시 생각하여 아까운 것을 두지 마시고 다만 인자한 생각만 봄으로써 나에게 보시하소서.' 하는 때에" 정도로, (13ㄹ)은 "오직 원하기는 '인자함으로써 좋은 방편을 쓰셔서 몸에 두고 계시는 것을 버리시고 나를 구족시키소서.' 하는 때에"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보살의 보시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인데, 이때의 화자와 청자는 가상의 인물로서 화자는 보시를 원하는 불쌍한 처지의 사람이며 청자는 모두 대왕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ㅁㅅㅎ立'가 사용된 문장들은 모두 상위 인물에 대한 높임이 표현되어 있는 명령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나타난 S 뒤의 'ㅅ-'는 분명히 '願(ㅅ)-'의 대동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13)의 문장들은 우리가 저 앞에서 살펴본 (6)의 문장과 동일한 구조의 문장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ㅌ立'와 '-ㅁㅅㅎ立'의 차이는 결국 공손법 등급상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32]

32) 이러한 설명은 물론 '-ㅌ立'의 'ㅌ', '-ㅁㅅㅎ立'의 'ㅁㅅ'의 의미 차이를 무시

5.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부정 명령법이다. 석독 구결 자료의 부정 명령법에서 사용된 부정 서술어 '不ㅅ-'는 모두 타동사로서 그 목적어로서 항상 동명사형 'V-尸'을 요구한다. 따라서 부정 명령형은 'V-尸 不ㅅ-'와 같이 거의 굳어진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14) ㄱ. 經し 諷誦ㅅ去ㄱ 時十ㄱ 當 願 衆生 佛矣 說ゎマㄱ 所ゝ十 順七 ㅅゝハ 摠持ㅅゝ尒 忘尸 不ㅅヒ立 (華嚴14:8.3)
ㄴ. 戒し 受ㅅ寸 學ㅅ寸 ㅅ去ㄱ 時ㇾ十ㄱ 當 願 衆生 善支 [於]戒し 學ㅅゝハ 衆ㄱ 惡し 作尸 不ㅅヒ立 (華嚴14:3.17)
ㄷ. 若七 堂宇ゝ十 入去ㄱㅣ十ㄱ 當 願 衆生 無上堂ゝ十 昇ㅅゝハ 安住ㅅゝ尒 動尸 不ㅅヒ立 (華嚴14:03.21)
ㄹ. 整衣ㅅ尒 束帶ㅅ去ㄱㅣ十ㄱ 當 願 衆生 善根し 檢束ㅅゝハ 散失 令ㄐ尸 不ㅅヒ立 (華嚴14:04.07)
ㅁ. 醜陋人し 見 當 願 衆生 [於]不善ㅅヒ七 事ゝ十 樂著し 生ㄐ尸 不ㅅヒ立 (華嚴14:6.09)

(14ㄱ)은 타동사 '忘-'의 동명사형 '忘尸', (14ㄴ)은 타동사 '作-'의 동명사형 '作尸'이 부정 명령형 '不ㅅヒ立'의 목적어로 나타난 경우이다. (14ㄷ)은 자동사 '動-'의 동명사형 '動尸'이 목적어인 경우이다. (14ㄹ, ㅁ)에서 '令ㄐ尸', '生ㄐ尸'의 'ㄐ'는 사동 접미사를 표기한 것으로서 부정 명령형의 목적어가 사동사의 동명사형인 경우이다.

15세기 국어의 부정 명령형은 주로 'V-디 말-'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V-게 말-', 'V-어 말-' 등의 형식도 보이는데(고영근 1987:102-3, 307-

---

한 것이다. 이들 구결자의 의미, 기능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있은 후에 '-ヒ立'와 '-ロハゎ立'의 정확한 의미 차이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ヒ立'는 가상의 청자인 일반 '중생'에 대해 사용되었고, '-ロハゎ立'는 화자가 분명히 자기보다 존귀한 인물로 대접한 청자에 대해 사용되었다는 점은 분명히 알 수 있으므로 공손법 등급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는 있다.

8), 석독 구결 자료에서는 이와 달리 부정되는 선행 용언이 항상 부정 용언 '아니ᄒᆞ-'의 목적어로서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인 현상이다. 석독 구결 자료에서 부정 명령문 'V-디 말-'에 해당하는 예가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어 부정법의 중요한 역사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일반적인 부정 명령문 구조가 '명사구(동명사형)-부정용언'의 타동 구조에서 '동사구 보문 - 부정용언'의 동사구 보문 구조로 통사 구조상의 변화를 겪었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이다.[33]

이러한 부정 명령문과 같이 명령문 가운데 15세기와 구별되는 구조를 보이는 또 다른 예는 15세기의 'NP1이 NP2이 ᄃᆞ외-' 구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ㅣ尸 [爲]ㅅㄴ ᄂᆞ-[(-)일 ᄃᆞᆯ ᄒᆞ-]' 구문이다.[34]

(15) 若 王子ㄴ 見 當 願 衆生 法ㄴ 從ᄐᆞ 化生ᄂᆞᆞᄒᆞ 而ᄆᆞ 佛子ㅣ尸 [爲]ㅅㄴ ᄂᆞᄐᆞᄒᆞ (華嚴14:6,21)

(15)는 'ㅣ尸 [爲]ㅅㄴ ᄂᆞ-'에 명령형 '-ᄐᆞᄒᆞ'가 통합되어 있는 명령문의 예이다. 여기의 '佛子ㅣ尸 [爲]ㅅㄴ ᄂᆞᄐᆞᄒᆞ'는 "불자가 되어라"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ㅣ尸 [爲]ㅅㄴ ᄂᆞ-'는 계사의 관형사형이 형식명사 'ㅅ(ᄃᆞ)'를 수식해 주고 이 명사구 전체에 목적격조사 '-ㄴ(-을)'이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15세기의 'NP1이 NP2이 ᄃᆞ외-' 구문은 자동사문이었으나 이와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는 석독 구결의 'ㅣ尸 [爲]ㅅㄴ ᄂᆞ-' 구문은 타동사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5세기의 화자들은 'ᄃᆞ외-'의 의미를 변화하는 과정을 중시하여 이해한 데 비해 석독 구결이 반영한 국어의 화자들은 변화시키는 행위를 중

33) 이러한 사실은, 석독 구결의 부정법에서 선행 피부정 용언이 어미 '-ㄱ'을 취하는 경우에는 부정어가 '不ᄉᆞ-'로 나타나는 현상과 함께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34) 남풍현·심재기(1976:49-50)과 남풍현(1993:141-2)에서 석독 구결의 'ㅣ尸 [爲]ㅅㄴ ᄂᆞ-'는 '일ᄃᆞᆯ ᄒᆞ-' 정도로 읽히며 "되다"의 의미로 해석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시하여 이해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35]

6.

지금까지 논의했던 사실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석독 구결 자료에서는, 15세기 국어에서는 물론 향가와 『鷄林類事』 등에서도 확인되는 명령법 어미 '-으라'가 보이지 않는다. 이 명령법 어미가 석독 구결 자료에서만 나타나지 않는 일은 매우 특이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석독 구결이 반영하는 국어에 '-으라'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짓기는 곤란하다. 자료상의 제약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석독 구결에서는 명령형이 'ᄂᆞᄒᆞ교(ᄒᆞᄂᆞ셔)', 'ᄂᆞᄅᆞᄒᆞᄀᆞ교(ᄒᆞ고기시셔)' 등으로만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명령법 어미 '-교(셔)'를 분석해 낼 수 있다. 이 밖에도 명령형으로 'ᄂᆞᄒᆞᄎᆞ교'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는 'ᄂᆞᄒᆞ교(ᄒᆞᄂᆞ셔)'와 동일한 형태론적 구성을 표기한 것이다.
2. 명령의 어미 구조체 '-ᄒᆞ교'는 '願ㅁ尸の丁/願入丁 S (ᄂᆞᄆᆞ千ᄉᆞ)' 형식의 청원구문 가운데 S에서만 나타나 화자의 내적인 바람이나 욕망의 내용을 표현한다. 이때 '-ᄒᆞ교'가 사용되는 전체 구문은 15세기의 '願호ᄃᆡ S (ᄒᆞ-)' 구문과 유사하다. 이 '-ᄒᆞ교'가 상관적 장면에서 나타난 일은 없지만 이 명령형이 상관적 장면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명령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ᄒᆞ교'가 표시하는 공손법 등급은 'ᄒᆞ야쎠체'나 '반말'(또는 'ᄒᆞ소체') 정도의 등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ᄒᆞ교'는 대부분 동사 어간에 통합하나 형용사, 계사 어간과도 통

35) 이는 바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석독 구결문의 부정 명령문이 타동 구문으로 나타난다는 사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현상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 더 이상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할 여력이 없다. 후일을 기약한다.

합한 듯한 예를 보인다. 그러나 '-ㅌ쇼'가 통합된 형용사, 계사는 자동사로 전용된 것으로 석독 구결의 명령형 '-ㅌ쇼'가 순수한 형용사, 계사와 통합한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3. 또 다른 명령의 어미 구조체로 '-ㅁㅏᄒᆞ쇼'가 있는데 이는 상관적 장면에서는 물론 화자의 바람이나 욕망을 표현하는 청원구문에도 사용되었다. '-ㅁㅏᄒᆞ쇼'는 앞의 '-ㅌ쇼'와 공손법 등급상의 차이를 보이는데 15세기의 'ᄒᆞ쇼셔체'에 해당하는 등급을 표시한다. 이때 청자에 대한 높임은 '-ᄒᆞ-'에 의한 것으로 보여 석독 구결이 반영하는 국어에서는 공손법 체계가 상대적으로 간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4. 석독 구결 자료의 부정 명령법은 타동문으로 나타난다. 곧 부정 서술어 '不ㅅ-'가 모두 타동사로 사용되었던바 피부정 용언은 항상 동명사형 'V-ㄷ'로 나타나 부정 명령형은 'V-ㄷ 不ㅅ-'와 같이 거의 굳어진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15세기의 일반적인 부정 명령형이 'V-디 말-'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기본적으로 타동 구문의 성격을 지닌 석독 구결의 부정 명령형이 15세기에는 동사구 보문 구조로 변화했음을 보여 준다. 부정 명령문이 기본적으로 타동 구문의 성격을 지닌 현상은, 15세기의 'NP1이 NP2이 ᄃᆞ외-' 구문에 해당하는 구문이 타동 구문인 '(-)ㅣㄷ [爲]ㅅᆞᆫ ㅅ-[(-)일 돌 ᄒᆞ-]' 구문으로 나타나는 사실과도 관련된 현상으로 보인다.

우리의 논의는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점들을 그대로 둔 채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ㅌ쇼(ᄂᆞ셔)', '-ㅁㅏᄒᆞ쇼(고기시셔)'에서 명령법 어미 '-쇼(셔)'를 분석해 냈지만 그 나머지인 '-ㅌ-'와 '-ㅁㅏᄒᆞ-'가 과연 어떠한 기능을 하는 문법 요소인가, 또한 '-ㅁㅏᄒᆞ-'는 더 분석될 수 있는 것인가, 분석된다면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논의를 진행시켜 왔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모두 명확히 밝혀질 수 있을 때 논의의 결과는 더욱 설득력 있는 것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후일을 기약하기로 하며,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석독 구결의 많은 부분들에 대한 많은 관심이 기울여질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고영근(1980), "중세어의 어미 활용에 나타나는 '거/어'의 교체에 대하여", 『국어학』 9.

고영근(1981),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탑출판사.

고영근(1987),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개정판, 1997, 집문당)

김영욱(1989), "중세국어의 존비법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89.

김영욱(1995), 『문법형태의 역사적 연구』, 박이정.

김영욱(1996), "14세기 문법형태 '-거/어-'의 교체에 대하여", 『한글』 206.

김완진(1980), 『향가해독법 연구』, 서울대 출판부.

김완진(1986), "신라 향가의 어학적 분석", 『전통과 사상』(Ⅱ), 한국정신문화사대계,(19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충회(1977), "15세기 국어 명령법 재고", 『충북대 논문집』 15.

남권희(1994), "고려본 大方廣佛華嚴經疏 권35의 서지학적 고찰", 『1994년도 구결연구회여름공동발표회 발표요지』.

남권희(1996), "고려 구결자료 '大方廣佛華嚴經' 권 제14의 서지적 분석", 『구결연구』 1.

남풍현(1976), "국어 부정법의 발달", 『문법연구』 3.

남풍현(1985), "舊譯仁王經 석독구결의 연대", 『동양학』 15(단대 동양학연구소).

남풍현(1986), "舊譯仁王經의 구결에 대하여",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남풍현(1990), "고려말·조선초기의 구결연구", 『진단학보』 69.

남풍현(1993), "고려본 瑜伽師地論의 석독구결에 대하여", 『동방학지』 81, 연대 국학연구원.

남풍현·심재기(1976), "舊譯仁王經의 구결연구", 『동양학』 6(단대 동양학연구소).

박영준(1994), 『명령문의 국어사적 연구』, 국학자료원.

박진호(1996), "규장각 소장 구결자료 楞嚴經 2종에 대하여", 『구결연구』 1.

백두현(1995),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경어법 선어말어미 '-ㅭ-', '-ㅱ-'의 분포와 기능에 관한 연구", 『어문론총』 29, 경북어문학회.
서정목(1983), "명령법어미와 공손법의 등급", 『관악어문연구』 8.
송병학(1975), "명령문 분석", 『인문과학논문집』 2-6(충남대).
심재기(1975), "舊譯仁王經上 구결에 대하여", 『미술자료』 18.
안병희(1965ㄱ), "15세기 공손법의 한 연구", 『국어국문학』 28.
안병희(1965ㄴ), "후기중세어의 의문법에 대하여", 『건국대 학술지』 6.
안병희(1967), "문법사-한국어 발달사 中", 『한국문화사대계』 V,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안병희(1973), "중세국어 연구자료의 성격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9.1.
안병희(1987ㄱ), "한국학 기초자료 선집(어학편)", 한국정신문화연구소.
안병희(1987ㄴ), "均如의 방언본 저술에 대하여", 『국어학』 16.
이승재(1991), "향가의 '遣只賜'와 舊譯仁王經 구결의 'ㅁㅅㄷ'에 대하여",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김완진선생회갑기념논총), 민음사.
이승재(1993ㄱ), "여말선초의 구결자료",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 지성사.
이승재(1993ㄴ), "고려본 화엄경의 구결자에 대하여", 『국어학』 23.
이승재(1995ㄱ), "동명사 어미의 역사적 변화", 『국어사와 차자표기』(소곡남풍현선생회갑기념논총), 태학사.
이승재(1995ㄴ), "화엄경 구결의 상태동사 어간", 『한일어학논총』(남학이종철선생회갑기념논총), 국학자료원.
이현희(1985), "근대국어 경어법의 몇 문제", 『한신어문연구』 1.
이현희(1986), "중세국어 내적 화법의 성격", 『한신논문집』 3.
이현희(1988), "중세국어의 청원구문과 관련된 몇 문제", 『어학연구』 24.3.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이현희(1995), "국어 문법사 기술의 연속성과 관련된 한두 문제", 『서강대국문과창과30주년기념학술대회 발표요지』.
장윤희(1995), "이두에 나타난 국어 활용어미의 성격", 『전농어문연구』 7(서울시립대 국문과).
정재영(1995), "전기중세국어의 의문법", 『국어학』 25.
정재영(1996), "종결어미 '-立'에 대하여", 『진단학보』 81.
최남희(1996), 『고대국어 형태론』, 박이정.

한상화(1994), "기림사본 '楞嚴經' 구결의 연구", 성심여대 석사학위논문.
한재영(1995), "향가 '良'자 소고", 『국어사와 차자표기』(소곡남풍현선생회갑 기념논총), 태학사.
허 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